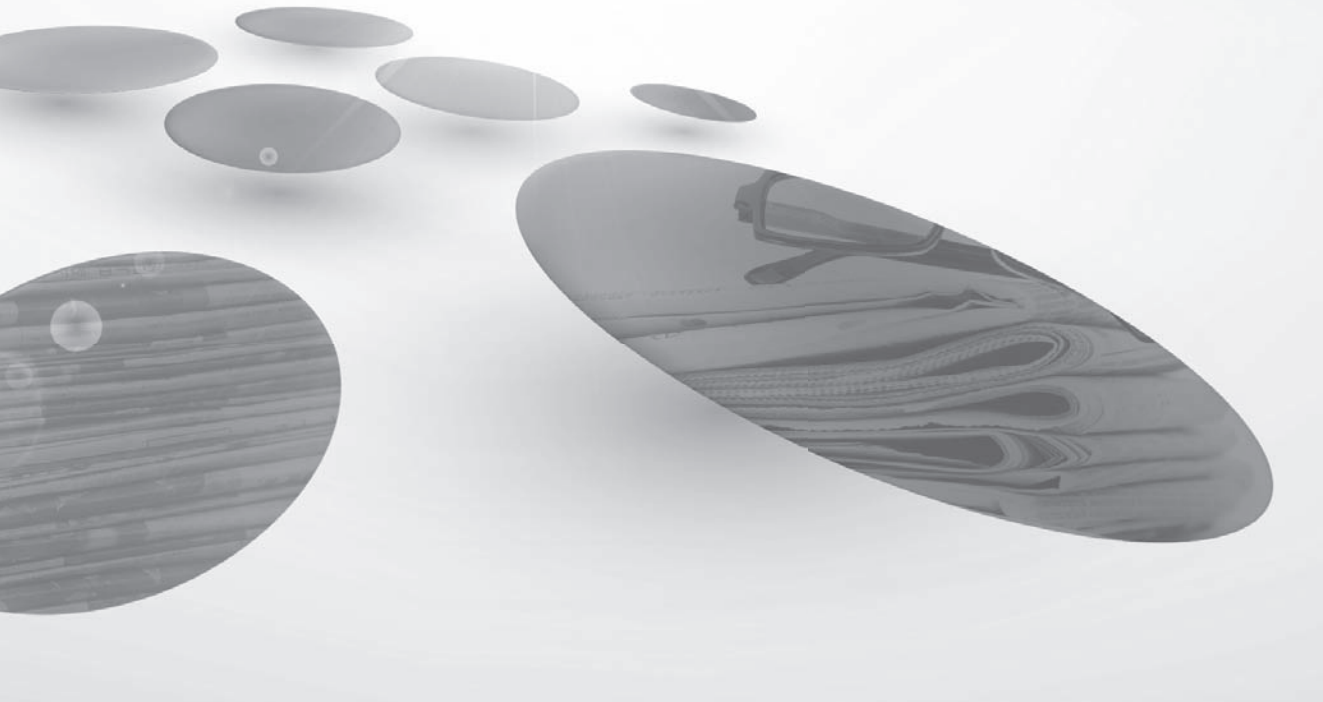
어린이 보호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연재소설〉

▲ 2011-1122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 문〉

헤럴드경제 연재소설 「泼俚波波(알리바바)傳」(글 채희문 그림 유현숙) 2011년 3월 30일자 27면 209회, 3월 31일자 27면 210회, 4월 1일자 28면 211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연재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209회〉=『(전략) "아프면 섹시하게 소리라도… 질러야지."

(중략) 튜닝 강습을 빙자하여 자동차 전용극장에서 현성애와 식스나인 자세로 매달려 있던 날, 아흐 아흐! 칙칙 푹푹! 끓어오르는 관능을 참지 못해 증기기관차처럼 뜨거운 콧김을 내뱉던 그녀도 이렇게 물었지… 오빠, 소리 질러도 돼?

"그래도 너무 너무 아프면 어떻게 해?"

"그러면 마구 마구 소리를 질러야지."

(중략) "오빠,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알지?"

"오래 해도 되긴… 되지."

(중략) "아이구야! 우리 성애 가슴이 너무 예쁘구나."

대화 내용으로 보면 드디어 성애가 젖가슴을 살짝 드러낸 모양이었다. 이미 오디오를 통해 전주곡이 연주되었으니 어찌 견딜 수 있을까. 비빔밥을 평생 젓가락으로 비벼왔던 권도일도 어쩔 수없이 와르르 무너지고야 말았다.

"어머, 오빠. 살살…"

"알았어. 알았어."

"손가락으로 잡으면 아파요. 손바닥으로 살살 굴려야지."

아흐! 손바닥에 성감대가 분포되어 있을 리도 없건만 온 몸이 짜릿해져서 눈의 초점마저 잃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권도일이었다. 어느새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내쉬는 호흡 끝자락마다 옅은 신음이 묻어나왔다. 아무리 체통을 지키려 애써도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이 꼭 학질 걸린 놈과 다를 바 없었다.

"손바닥보다야 혀가 더 부드럽지. 옷자락 좀 올려 봐."

(중략) "으으… 아흐!"

(중략) "천천히 혀끝으로, 이제 왼쪽은 그만! 오른쪽."

과연 스물두 살? 그녀의 명령에 따라 그의 혀끝은 풍만한 양쪽 젖가슴을 오가기에 바빴다.』

〈210회〉=『상황이 이 정도로 진전되자, 권도일은 그녀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에 허겁지겁 스커트를 벗기기 시작했다. 박성애는 침대 위에 도도하게 누워 있는 자세였고 권도일은 그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은 자세였다. (중략)

그녀는 권도일이 스커트를 수월히 벗길 수 있도록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자의 나신 앞에 무릎을 꿇었던 역사적 위인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중략) "자, 이리 누워요."

드디어 스커트가 벗겨지고, 꽃무늬 레이스가 달린 삼각형 천 조각마저 벗겨졌을 때 권도일은 무릎을 꿇은 채로 허겁지겁 제 바지를 벗기 시작했다. 그는 미처 와이셔츠를 벗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부풀어 오른 지겟작대기 위로 넥타이가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하던 거 계속해줘요, 오빠."

(중략) "왼쪽은 그만! 오른쪽."

귀밑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박성애가 이렇게 명령하면 즉시 그녀의 왼쪽 젖가슴과 오른쪽 젖가슴을 오락가락하며 입술봉사를 하고,

"천천히 혀끝으로!" 하고 명령하면 즉시 혀를 뽑아 물고 침을 발라가며 혀끝봉사를 하는 꼴이 가관이었다. 그의 오감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으며 박성애의 명령을 거행하기 위해 말미잘 촉각처럼 예민하게 살아 움직였다. 고도 감각의 경지… 그녀의 숨소리가 피부에 느껴지고, 그녀의 교성이 눈에 보이며,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신열이 귀로 들리는 이상한 경지…

"아흐… 오빠, 이제 달려!"

드디어 총 진군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권도일은 결사의 의지를 다지며 그녀의 비너스를 향해 지겟작대기를 겨냥했다. 하지만 천하무적의 사나이 권도일이 오감과 결사의지가 합치된 무의식 상태로 노력봉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사실이 더욱 가관이었다.

"됐어? 오 선생이 찾아왔어?"

숨을 헐떡이며 꼴뚜기짓을 하는 그의 등판에는 어느새 방울방울 땀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으,아,으… 하는 외마디 신음을 토해내면서 고개를 좌우로 거칠게 흔들 뿐이었다. 오 선생, 이른바 오르가슴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으니 더욱 더 공들여 허리봉사를 하라는 뜻이었다.

"어때? 아직도? 오 선생이 아직도?"

권도일은 침대모서리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꼴뚜기 짓에 열중했다. 그녀도 이제야 몸이 달아오르는가?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힌 채 두 팔로 침대 바닥을 짚더니 한없이 뒤로 목을 젖혔다.

그 모습에 어찌 흥분하지 않을 손가? 권도일은 무릎 꿇은 채로 그녀의 양 허벅지를 두 팔로 옆구리에 꼬나 잡고 힘차게, 힘차게 작업을 계속했다.(중략) 그녀는 어느새 반이나 까무러쳐 있었다.(후략)』

〈211회〉=『(전략) "오빠, 힘! 힘!"

(중략) "아아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가. 쾌락의 탄성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그녀가 두 다리를 힘주어 뻗어 내었다. 아마도 몸서리를 치는 모양이었다. 증폭된 쾌감은 그런 식으로 스포츠섹스의 자세를 바꾸어놓게 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대

모서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있던 권도일은 어느새 무수한 펀치를 얻어맞은 권투선수처럼 카페트 바닥에 벌렁 드러누운 자세였다.

"너무 아파, 내가 할게요."

박성애가 눈을 질끈 감은 채로 그의 배 위에 올라타며 말했다.(중략)

"오늘이 화류계 첫날밤 맞아?"

(중략)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눈을 질끈 감은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아, 으, 아,으… 박자에 맞추어 교성만 토해내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 남자를 냉정히 리드할 줄 아는 선수는 아닌 모양이었다.

"으흡!" 박성애는 쾌감이 몰려올 때마다 그의 목에 얽어진 넥타이를 힘차게 잡아채곤 했다. 그럴 때마다 권도일은 뒷다리 잡힌 메뚜기처럼 벌떡벌떡 상체를 일으켜야만 했다. 파도치듯 쾌감이 몰려오는지 그녀가 연거푸 목을 당길 때엔 아뿔싸! 현기증이 도질 정도였다.

(중략) 그녀가 목을 당기면 그는 벌떡 상체를 일으켜야만 했고, 그때마다 눈앞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젖꼭지를 표적삼아 입으로 받아 물곤 했다. 그러다가 그녀가 몸을 비틀면 입에서 쏙 빠져 달아나는 그 핑크빛 녹두알이 아쉽게 여겨지곤 할 뿐.

"소리 질러도 돼요?"

"된다니까. 맘껏 질러."

(중략) 그는 벌떡이며 왼쪽, 오른쪽으로 입의 방향을 맞추어 녹두알을 받아 물기에 바빴다. 그러면서 서로가 뜨거워지고, 또 달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그래도 또 달리고…

드디어 넥타이를 고삐 삼아 말달리던 여걸 잔다르크가 숨을 깔딱이며 그의 가슴에 엎어지고 나서야 그는 편안해질 수 있었다.(후략)』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한 기업체 간부와 술집 접대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3회에 걸쳐 음란한 대사와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아가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75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 문〉

헤럴드경제 2011년 5월 30일자 28면 250회, 5월 31일자 28면 251회 연재소설 「泼俚波波(알리바바)傳」(글 채희문 그림 유현숙)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소설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250회〉=『(전략) "오빠, 지금! 빨리요…"

하지만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제풀에 절정을 향해 치닫던 그녀는 그의 어깨를 힘차게 끌어안으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지선아, 모래… 모래!"

유호성은 거의 울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다. 자고로 남녀상열지사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 법인데, 정말 필요한 것이 타이밍인데… 실토할 방법도 없고…

(중략) 그는 공포에 젖은 채 그녀의 비너스를 조준하여… 합체했다.

"아! 뜨거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들 한다. 즐거운 일인 줄 알지만 즐거움에

빠져들 수 없는 것, 비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슬퍼지는 것, 탄성으로 이어지는 줄 알면서도 간혹 숨이 끊어지는 듯한 숨결…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내지르는 비명.

서른 살 넘은 여자, 상열지사에 도가 트인 여자와의 섹스에서 느낄 법한 이러한 기쁨을 그는 기괴한 상황에서 깨닫고 있었다. 고통과 쾌락은 동일한 것, 사랑과 아픔 역시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빠!"

그녀의 손톱이 등으로 파고드는 것으로 보아 그녀가 통증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있는 힘껏 그의 어깨를 할퀴고 있었다. 여자의 손톱 끝은 어쩌면 이리도 매서울까.

"우리 바다 속에서 하자."

그 순간 유호성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성큼성큼 바다 속으로 향했다.

"바다 속에서 하다니, 우리가 하마예요?"(중략)

"아, 차가워요."

"오빠가 곧 뜨겁게 해줄게. 오빠 믿지?"

그는 어금니가 덜덜 떨리는 것을 참아가며 물속에서 합체를 시도했다. 물고기도 물속에서 이렇게 놀까? 파도에 따라 덩실덩실 요동을 치는 동안 그녀는 또다시 으으, 아아! 교성을 토하기 시작했다.(후략)』

〈251회〉=『(전략) "물속이라 그런지 임팩트를 주기 힘들어!"

그녀의 허리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꼴뚜기 짓을 하던 유호성이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부력 때문인지 혹은 마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용을 쓰며 허리치기를 감행했지만 그럴수록 아쉬움이 느껴지곤 했다는 말이다.(중략)

"아! 바로 이거야."

순간 유호성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물속 하마로부터 얻은 진리는 다름 아닌 원 포인트 집중! 이미 온 몸은 얼음장 같이 차가와졌지만 합체의 순간마다 지겟작대기 끝은 담금질을 하듯 뜨겁게 살아나곤 했던 것이다.(중략)

큰 깨달음을 얻은 유호성은 물속에서 두 팔로 더욱 단단히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뜨거운 엔진 속에서 작대기가 곧 터질 것 같다가도 엉덩이를 뒤로 빼면 급속히 냉각이 되곤 했으니 또다시 분기탱천… 그는 자동 수냉식 시스템의 효과를 절감하면서 모든 감각을 원 포인트에 집중했다.(중략)

철퍽, 철퍽! 따지고 보면 차가운 물속에서의 사랑 놀음이야말로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단수 상열지사였다. 기관총을 오래 쏠 수 없는 까닭은 총신이 달구어지기 때문 아니던가. 그러나 물속에서는 자동 냉각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좋은가.

자동 냉각방식의 최고 수혜자는 김지선이었다. 그녀야말로 상열지사를 경험한 이래 가장 긴 러닝타임을 기록하는 중이었고 아울러 요원하기만 했던 멀티오르가슴을 느끼기 직전이었다. 5분을 가뿐히 넘어서고, 10분을 훌쩍 뛰어넘고, 30분이 넘어가는 중이었지만 유호성은 지칠 줄을 몰랐다. 아쿠아테라피 치료가 별것이던가? 상열지사 도중에 허리가 아파오면 즉석에서 출렁이는 물결에 의해 치료가 이루어지곤 했으니… 그야말로 지칠 때까지!

"윽, 억, 악, 켁, 학…"

동물만 살던 무인도에 입성했기 때문일까? 그녀는 동물처럼 외마디 소리만 토해내고 있었다. 더 이상 인간들이 쓰는 말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불륜관계인 남녀가 바닷가 백사장과 바닷물 속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2회에 걸쳐 음란한 대사와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02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 문〉

헤럴드경제 연재소설 「泼俚波波(알리바바)傳」(글 채희문 그림 유현숙) 2011년 7월 21일자 29면 287회, 8월 12일자 24면 303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소설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87회〉=『(전략) 돈과 명예를 함께 움켜쥔 유민 회장의 진정한 욕망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젊음, 그리고 사랑일 것이다. 툭 터놓고 말하자면 순 음지기! 아무런 절차 없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마음 편히 섹스하며 즐기는 것일 뿐이다. 현성애는 유민 회장의 그런 욕망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특별한 조건 없이 몸 친구가 되어주면 마냥 좋아하는 꼴은 늙은 재벌일수록 오히려 더했다. 재벌인들 뭐하나? 회장인들 뭐하나? 어느새 몸이 늙었으니… 젊은 여자의 손길만 닿아도 본능적으로 맥을 못 추는 한심한 수컷에 불과한 것을.(중략) 하룻밤일지언정 상열지사의 대가는 충분히 치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싫단다. 젊고 탱탱한 것이 욕심마저 없으니 그 아니 귀여운가.

여전히 착암기로 바위 뚫는 자세였으므로 유민 회장은 아래를 굽어보며 대답했고, 현성애는 거의 물구나무 선 자세로 물었다. 서로가 묻고 대답했지만 서로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라 이를 악문 상태였다. 남이 보면 원한 맺힌 사이로 착각할 정도였다.

"아, 좋다. 좋아서 미치겠구나."

가쁜 숨결이 오가는 중에도 별빛은 선루프를 통해 자동차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하낫 둘, 하낫 둘! 유민 회장이 착암기를 가동하는 동안 현성애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간혹 몸서리를 치곤했다. 그녀의 좁은 비너스는 탄력이 넘쳐나고 있었다. 유민 회장이 목에 핏줄을 세우며 거칠고 격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녀의 머리는 점점 시트 아래로 미끄러져서 아예 절구 공이처럼 바닥을 찧고 있었다.

"아으, 아으!"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똑같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재벌이나 가난뱅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를 불문하고 옷을 벗은 상태에선 똑같다는 말이다. 지겟작대기가 팽팽할수록 '으으, 아아!' 외마디로 물어보고, 하반신이 뜨거워질수록 무아지경에서 '오오, 예예!' 신음처럼 대답할 뿐이었다. 학벌도 필요 없고 계급도 필요 없었다. 절정에 가까워질수록 입을 딱 벌리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뿐이었다. 오로지 체력만이 간절했다. 아! 아! 마침내 터지는가… 유민 회장이 턱을 위로 쳐들면서 거대한 신음을 내뱉자 그녀는 입을 따악 벌렸다.』

〈303회〉=『(전략) 모텔 방에서는 새로운 열기가 돋아 오르기 시작했다.

"하악, 하악!"

라벨의 아름다운 곡, 볼레로가 흐르는 가운데 강준호와 신희영은 환희의 끝을 보기 위해 목숨 건 질주를 벌이는 중이었다. 볼레로는 3초 간격으로 한 번씩 강렬한 음이 터진다는 게 매력이었는데… 지금은 단순한 음악 감상 시간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3초에 한 번씩 스타카토 액션을 연출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다.(중략)

그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섹스에서의 스타카토 액션에서도 절도 있는 행동과 민첩성이 필요한 법이다. 눈은 감아도 좋고 떠도 좋지만 온 몸의 감각은 잔뜩 열어놓아야만 한다. 3초에 한 번 Go를 하려면 2.5초 동안은 마음속으로 참을 인(忍)자를 쓰며 Stop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오일을 잔뜩 바른 아름다운 여체 위에서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2.5초 동안 참을 인자를 쓰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어흐, 어흐!"

그러다가 가끔은 3초에 여섯 번씩 Go를 해야 하는데… 이 순간에는 4두마차를 타고 죽도록 내달리는 '쥬다 벤허'처럼 마구 채찍을 휘둘러야만 하는 것이다. 코와 귀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리도록 3초를 달리고 나면… 아! 서서히 눈앞이 희붐해지면서 홍콩으로 향하는 문이 삐끗 열리게 될 것이다.(중략)

"강 프로 님… 날아갈 것 같아!"

드디어 신희영의 육신에는 우리 민족의 희망 김연아 선수의 육신이 빙의되고야 마는 것이다. 나비처럼 얼음판을 활강하다가 오른쪽 발을 슬쩍 뒤로 빼고 토(Toe) 점프를 하게 되더라는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 팥죽처럼 몸이 달아오르겠지만 정신만은 냉철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을 날아오를 때의 쾌감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 몸이 붕 떠요."

김연아 선수만으로는 양에 차지 않았던가. 신희영은 어느덧 하늘을 나는 미녀 새 '이신바예바'로 환생하는 중이었다. 강준호의 튼실한 양 팔뚝을 지지대 삼아 마치 장대높이뛰기를 하는 상황처럼 순간적인 힘을 뿜어내는데… 입술을 세 번쯤 악물고 나면 어느새 천지개벽, 극락처럼 변한 세상 위를 둥둥 떠다니게 되곤 했던 것이다.

오일을 바른 몸은 미끄러웠다. 두 사람의 피부 사이에 형성된 얇은 윤활 막은 기분 좋을 만큼 미끄러지게 해서 과격한 마찰의 통증을 없애주기에 충분했다. 세게 쥘수록 미끈 빠져나가는 젖가슴은 강준호의 애를 태우고도 남았다. 그녀의 핑크스위치는 손가락 끝으로 잡으려 할 때마다 구슬이 튕기듯 옆으로 삐지곤 했다. 이빨을 세워 강약을 조절하며 물고 있자니 아! 경기 일으키듯 바르르 아래턱이 떨려오는 통에 그나마도 수월치 않았다.

"아, 오빠!"

곧 환갑을 눈앞에 둔 사모님이 오빠를 부르짖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청각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습관처럼 부르던 '강 프로',

요식행위로 부르던 '스포츠 마케팅 팀장'이 아니라 '오빠!'를 외치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어쩌면 행복에 겨워 환상 속을 헤매는 모양이었다. .』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재벌회장이 젊은 여성과, 재벌회장 부인이 젊은 남성과 각각 불륜의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음란한 대사와 자극적인 표현을 섞어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재만화〉

▲ 2011-1203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연재만화「강안남자」(원작 이원호 글 · 그림 김성모) 2011년 6월 24일자 14면 416회, 6월 25일자 19면 417회, 6월27일자 418회, 7월 12일자431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일간스포츠는 위 연재만화에서 주인공 조철봉의 고교동창생인 친구가 조철봉에게 자신의 부인을 겁탈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조철봉이 거부하던

끝에 결국 응해 친구 부인을 유혹해 불륜관계를 맺는 과정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친구는 자신의 부인이 외도를 자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조철봉은 친구부인과 질펀한 정사를 나눈 뒤, 그 부인을 이혼과 경제적 파탄이라는 파멸로 몰아넣어 친구를 대신해 복수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와 그 과정을 표현한 그림은 인륜도덕을 파괴할 만한 퇴폐적 내용이다. 게다가 만화 대화 내용 중에는 '이 시발놈아!…' '잘났네 시발놈' '내가 개냐? 이 시발놈아!' 등 저속하고도 거친 욕설이 수시로 나온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충동, 왜곡된 성의식, 잘못된 국어사용 습관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4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2.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일간스포츠 2011년 10월 8일자 23면 연재만화「야망4인조」(글 김성모 · 그림 송상훈) 제542회, 스포츠조선 10월 8일자 21면 목 · 금 · 토 연재만화「좀비콤비」(글 · 그림 김행장) 제2173회, 스포츠동아 10월 8일자 18면 연재만화「츄리닝」(글 이상신 · 그림 국중록) 제1004회 '살인의 추억'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스포츠 신문들의 연재만화는 욕설과 성행위묘사 손짓을 그대로 표현했다.

일간스포츠 만화에서는 등장인물이 대화중 '이런 시발 · · !'이라는 욕설을 두 차례나 했고 스포츠조선 만화에서는 등장인물이 '시벌눔아~'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또 스포츠동아 만화에서는 서로 다른 등장인물 두 명이 각각 한차례씩 손가락을 이용해 성행위를 나타내는 손짓 욕을 독자들을 향해 정면으로 하는 장면이 나온다.

요즘 청소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일상대화에서 욕설을 많이 쓴다고 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스포츠신문들이 욕설과 음란한 몸짓의 비속한 표현을 남발한다면 그들의 정서와 인격을 올바로 함양하는 데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일간스포츠 2012년 1월 4일자 · 6일자 17면과 1월 7일자 16면 연재만화「강안남자」(원작 이원호/글 · 그림 김성모) 579화 · 581화 · 582화, 스포츠경향 1월 7일자 13면 연재만화「여자전쟁」(글 · 그림 박인권) 967화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위 만화들은 읽기 민망한 욕설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했다. 일간스포츠는 며칠 동안 잇따라 만화 속 주인공인 조철봉이 '시발' '시발!' '니미!'라고 내뱉는 욕설을 보도했다. 스포츠경향 역시 극중 인물이 대사 도중 '니기미'라고 뱉는 욕설을 있는 그대로 실었다.

이는 독자들, 특히 청소년들이 욕설을 습관적으로 자주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더욱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품위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항(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항(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